

# 《靈樞·五色篇》中‘其脈口浮滑者病日進’의 解釋에 대한 考察

金 泰熙

## I. 序 論

《靈樞·五色篇》은 人迎氣口脈에 관한 理論을 담고 있는 篇中의 하나이다.

人迎氣口脈은 後代에 寸口脈의 左右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 바가 많고, 《內經》과 같은 脈法이라 說明한 醫家도 《內經》 以外의 內容을 설명하지 못하고, 인용만 한 정도로 현재 임상에서 사라진 脈法이다.

그러나 人迎脈氣口脈法은 人迎과 氣口의 比較診法이며 病位의 內外 盛衰를 알 수 있는 脈法으로 진단학적인 가치가 있다.

「五色篇」에 보면 “其脈口浮滑者病日進”<sup>1)</sup>이라 하였는데, 楊上善은 “病日損”<sup>2)</sup>이라 하여 상반된 해석을 하였다. 또한 “其脈口滑以沈者病日進”<sup>3)</sup>이라 하였는데, 이는 浮滑하나 滑沈하나 다 같이 病日進이라면 人迎氣口脈의 常을 정하고 임상에 적용하는데 혼란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人迎氣口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II. 本 論

浮滑해도 病日進, 滑沈해도 病日進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脈口는 內를 主하기 때문에, 浮滑한 것은 陽邪, 滑沈한 것은 陰邪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內經》에서는 人迎脈 또는 氣口脈內에서의 陽邪 陰邪를 구별하지는 않았고, 氣口에 異常이 있으면 病이 內部에 있고 人迎에 異常이 있으면 病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93

2)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성문화사, 1986, PP.202-203

3) 洪元植, 前揭書. P.293

이 外部에 있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또 人迎脈은 病의 進退를 알 수 있게 文章의 排列이 되어 있으나 氣口脈은 그렇지 못하다. 즉 주위의 文章이 對句로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人迎脈이 外를 主하면 陽脈인 浮가 나타나고 沈하게 되면 邪氣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病日損이라 판단하였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氣口脈도 病日損이 되어야 할 것이다.

#### 浮滑한 脈과 滑以沈한 脈의 구분

脈口에서 脈이 浮하던 沈하던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된 차이를 나타내야 한다. 浮는 表를, 沈은 裏를 主하기 때문이다.

《靈樞·四時氣篇》에 보면 “持氣口人迎以視，其脈堅且盛且滑者病日進。”<sup>4)</sup>이라 하였는데 馬蒔는 이에 따라 滑脈으로 인해 다 같이 病日進<sup>5)</sup>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五色篇」에 ‘人迎沈以滑者病日損’이라하여 馬蒔의 해석은 모순이 된다. 따라서 滑脈에 의해 病의 進退를 가릴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滑以沈한 脈은 滑이 앞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滑脈을 위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滑脈이 위주라면 뒤의 어떤 脈에 무관하게 앞서 말한 「四時氣篇」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以’는 接續詞로서 두 개의 병렬한 形容詞 또는 形容句를 연결하며 그리고 또……하다<sup>6)</sup>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滑이 앞에 있다 하여 주된 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즉 沈滑로 표현해도 마찬가지 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沈脈은 上下의 位置에 의한 구분이고, 滑脈은 形狀의 구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두가지로 표현하는 것이 先後 또는 主副의 관계를 갖지 못한다.

#### 陰脈과 陽脈의 숫자에 따른 구분

揚上善은 脈口는 陰位이고 浮滑은 陽脈이므로 二陽脈이 陰位에 나타났기 때문에 病日損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人迎脈에서는 一陰一陽脈이 나타나도 病日

4) 洪元植. 前揭書. P 248

5) 張隱庵外 黃帝內經素問靈樞合篇. 臺聯國風出版社. 1968. 臺北. P. 310

6) 朴贊國外. 醫學漢文 成輔社. 1978. 서울. P.224

損<sup>7)</sup>이라 하였다.

° 揚上善의 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脈口에서

浮滑하면 二陽脈이므로 病日損.

滑小緊以浮하면 一陽三陰이므로 病甚.

滑以沈하면 一陰一陽이므로 病甚.

人迎脈에서

大緊以浮하면 二陽一陰이므로 病甚.

沈以滑하면 一陰一陽이므로 病損.

滑盛以浮하면 三陽이므로 病甚.

이상은 脈狀을 陰陽으로 구분하여 그 數字의 多少에 따라 解釋하였으나 各관적인 설명은 부족하다.

### III . 結 論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人迎氣口脈은 病位의 内外를 구분하여 人迎은 外部, 氣口는 内部의 病을 아는 脈法이다.

2. 氣口脈은 沈하고 人迎脈은 浮하나 氣口脈이 浮하게 되거나 人迎脈이 沈하게 되면 病邪가 없어지는 것이다.

### < 參 考 文 獻 >

-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 2) 揚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86.
- 3) 張隱庵外, 黃帝內經素問靈樞合篇,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68.
- 4) 朴贊國外, 醫學漢文, 서울 成補社, 1987.

7) 揚上善. 前掲書. P.P. 202-203